

보도시점 2024. 2. 26.(월) 9:30 배포 2024. 2. 25.(일) 14:00

##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 개최 -

- ✓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소통하도록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
- ✓ 5월중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 수렴 → 상반기중 가이드라인 확정 및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2월 26일(월),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 개요 〉

- 일시 : '24.2.26.(월) 9:30~11:30 / ○ 장소 : 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
- 인사말 :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 ○ 축사 :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 주제발표 : 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한국거래소)  
②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③ 배당절차 개선 추진현황 및 밸류업 노력 확산 지원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사회자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 패널토론 : (금융위·유관기관) 금융위원회 박민우 국장, 한국거래소 정지현 상무,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  
(투자자·금투업계) 국민연금공단 이동섭 실장,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  
(상장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인철 상무, 리노공업 정병준 상무  
(학계) 권재열 경희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①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②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③일반주주 보호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①한국거래소 정지현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정부·유관기관 논의를 통해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②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이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③상장협 김춘 본부장이 상장협·코스닥협회 공동으로 마련한 “배당절차 개선 추진현황 및 밸류업 노력 확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관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의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한다.

\*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등 혜택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둘째,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익성·시장평가 양호 기업 +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예 : 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 등)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아울러,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시장별·업종별 PBR·PER·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함으로써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

셋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공동 IR·온라인 홍보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상장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회 주관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해 나간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증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별첨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끝.

담당 부서 < 총괄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윤우근	(02-2100-2651)
			사무관	현지은	(02-2100-2652)
			사무관	홍연제	(02-2100-2644)
< 협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1)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현익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15-275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전동표	(044-215-4223)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901)
		담당자	사무관	김선영	(044-204-3922)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책임자	국 장	오상완	(02-3145-8100)
		담당자	팀 장	조성우	(02-3145-847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상 무	정지현	(02-3774-8505)
		담당자	부 장	김정영	(02-3774-8690)
			부 장	윤재숙	(02-3774-45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	책임자	본부장	김 춘	(02-2087-7008)
		담당자	팀 장	강택신	(02-2087-7150)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	책임자	그룹장	진성훈	(02-368-4553)
		담당자	팀 장	김 구	(02-368-4570)
	자본시장연구원	책임자	실 장	이효섭	(02-3771-0650)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책임자	본부장	오덕교	(02-6951-3844)

1.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한지?

-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 작용한 결과임
- ☐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그간 증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일반주주 이익보호 등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왔음
-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되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되면,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자율적 권고로 운영하면 기업 참여가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지?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폐널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
  - 기업 밸류업의 성패는 기업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음
  -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공시만을 초래할 우려
- 따라서, 상장기업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 사항으로 운영하되,
  -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
-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우수 기업 선정(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지원, IR·홍보 지원 등 혜택), 지수개발 및 ETF 상장,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3. 단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 기업별 특성에 맞게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 R&D투자, 신사업 진출, 인적자본 투자 등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는 것에 중점

#### 4. 일본 사례와의 차이점은?

- ☐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와 유사함
- ☐ 다만,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차이
  - ①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
  - ② 다양한 세제혜택, 우수기업 표창·세정지원, 거래소 전담 지원체계를 통한 컨설팅·피드백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③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

## 5.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 거래소 중심으로 5월 중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공시 원칙,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할 계획

□ 금년 하반기 이후 준비된 상장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시기한을 설정하지 않되, 필요시 기업은 계획수립 일정 등을 미리 공표할 수 있음